

올해 발생 과수화상병 감소세

지난 12일 이후 현재까지 농진청, 현장 연구 강화 병 확산 여부 등 조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23일 현재까지 총 500농가(271.4ha)에서 확인되었다고 24일 밝혔다.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이달 12일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제천 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85.4%, 면적은 88.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매몰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충주지역은 전체 309농가 중 277농가를 매몰 완료해 농가 수 대비 9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과수원 사과나무의 5%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방제 기준 때문에 말도 못 했다"라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농가는 한 주만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발생주율이 5%가 될 때까지 고의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해도 농장 전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선별적인 방제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과수산업 유지와 방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는 청정지역 유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방제를 추진하는데, 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매몰하고 주위 100m 내의 사과·배 농장도 추가 발생이 확인될 경우 매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관련 현장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별, 매몰지 병원균 존재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화상병 발생주

가 5% 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을 부분 제거한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병의 확산 여부와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예방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방제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발생 및 방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25일 '농작물병해충 예방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방방제대책회의'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와 관련한 농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가 중심이 된 예방제도 마련과 교육방안, 그리고 신고의무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올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30개사 지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기업의 수출 증진 도모를 위해 '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최종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500만불 미만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전북지역은 30개사 지정됐다.

지정 기업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한 지정증이 수여되며, 이 기간 동안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및 금리·보증·환율 등에서 우대 지원을 받는다.

2000년 첫 지정 이후, 전국 1만9,472개사(6월 현재 지정유효 2,129개사), 전북 689개사(지정유효 55개사)를 지정했으며, 매년 수석예 개최를 통해 지정증 수여는 물론, 여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매년 개최하는 지정증 수여식 대신 일부 희망기업에만 지정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안남우 청장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에 축하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절기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우대 지원 혜택 활용으로 부지런히 수출 근력을 키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거듭날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올 마이너데이터 실증 서비스 금융분야 사업자 선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마이너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 금융분야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너데이터 사업이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은 상품, 정책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실증 서비스 과제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의료, 금융, 공공, 교통, 생활 및 소상공인 6개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선정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과 계열사인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은 (주)핀테크, SK텔레콤, SK에너지, SK네트웍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모빌리티 데이터(Mobility Data)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분야 실증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이번 마이너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으로 각종 산업간 제휴를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발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 8월에 시행되는 마이너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고객이 중심이 되는 금융환경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24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 대비 4대보험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

전주상의, 임금설계·급여관리 등 실무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는 24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인사·노무·급여 및 4대 보험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거법로기준법 기초지식 △급여

체계 및 계산 △4대 보험 관리 △세무신고 관리 등 4대 보험의 자격 취득·상실신고부터 정산업무까지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직접 연관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 바뀌는 노동법 이슈와 유의사항은 물론, 임직원 급여관리 및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등 인건비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세무

와 노무관계를 동시에 살펴보는 노하우도 소개해 교육에 참석한 도내 임직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4대 보험 업무는 기업에서 인사·노무·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수강생들이 사내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 업무와 급여 관리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다학제 진료로 재양성 막다

유럽방사선학저널 최신호에

전북대병원 진료연구 게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의 코로나19 재양성을 막는 다학제 진료 연구가 유럽방사선학저널(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최신호에 게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연구는 전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를 치료중인 의료진들(중환자실,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영상의학과)이 다학제 진료를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해 재양성을 막는 사례로, 코로나 19 다학제 진료팀인 영상의학과, 체중·진공공교수, 감염내과 이창성 교수, 중환자 의학센터 이용범 교수, 예방의학과 이주형·권근상 교수가 함께 보고했다.

병원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후 퇴원은 △3일 이상 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면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결과가 2번 연속 음성으로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다학제 진료연구.

영한 저선량 CT상에서 새로운 병변들이 보여서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던 케이스다.

당시 의료진들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었고 PCR결과가 2번 연속 음성이다 할지라도 CT상에 새로운 병변이 보인다는 것은 재양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퇴원을 취소하고 치료를 계속했다.

실제로 환자는 코로나19 퇴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6일 후 재양성을 보였고, 지속적인 치료를 한 결과 내원 35일차에 CT상 병변도 모두 호전되고 PCR결과도 두 번 연속으로 음성

(negative)이 나와 퇴원이 가능했다.

이 연구는 영상소견과 환자의 임상 소견이 잘 맞지 않는 코로나19 환자에서 저선량 CT를 활용하여 재양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케이스로서, 격리해지의 기준에서 저선량 CT가 추가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내 각 방면의 전문교수들이 모인 다학제 진료팀이 환자가 퇴원 후 재양성의 가능성을 줄여주는데 역할을 했다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우정 구현”

김홍재 신임 전북우정청장 취임



제36대 전북 지방우정청장에 취임한 김홍재 청장이 24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홍재 청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아시아공과대학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노동부 고용보험운영과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청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정보과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신사업과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장, 물류혁신기획단장, 보험사업단장 등을 두루 역임해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 청장은 "맛과 멋, 전통의 문화가 넘쳐나고 인심과 함께 어우러진 예술의 고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해 전북도민에게 사랑과 신뢰 받는 전북우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현장중심, 고객중심 경영으로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체국의 강점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북도와 동반성장 하는 전북지방우정청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5월 전북 수출 3억7083만 달러

전년보다 36.1% ↓... 대기업 가동 중단·코로나19가 큰 영향

2020년 5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1% 감소한 3억 7,083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 수출액이 4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의 일이며 무역수지도 200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2020년 5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일부 업종이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중단·축소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한데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며 수출주력 업종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10대 품목 중 농약·의약품(\$3,204만, 17.3%)과 종이제품(\$1,907만, 11.0%)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가장 많이 수출된 건설관공기계(\$3,256만)도 전년 동월보다 22.7% 감소했고, 정밀화학원료(\$2,618만, -63.6%), 동계품(\$2,525만, -22.2%), 합성수지(\$2,142만, -49.1%), 농기계(\$1,431만, -30.2%), 인조섬유(\$1,317만, -38.7%), 선재·봉강·철근(\$1,939만, -66.3%), 자동차(\$1,185만, -77.7%)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농산 가공품(\$1,154만, 51.5%), 식물성물질(\$517만,

110.9%)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상위 20대 수출상대국 중 헝가리(\$956만, 86.8%), 방글라데시(\$923만, 107.6%), 인도네시아(\$909만, 34.1%)로의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9,538만, -34.7%), 미국(\$4,900만, -40.4%), 일본(\$2,618만, -39.9%), 베트남(\$2,159만, -31.3%) 등 5대 수출상대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출시장에서 부진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정밀화학, 철강업종에서 수출이 많은 대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했고, 낮은 유가도 수출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삼중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국제 감염병 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맞먹거나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농식품산업 지원 강화와 리소어링(유통) 기업 유치, 첨단산업 육성 등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 40대·60대 이상서 전국보다 높아

65세 이상 각각 전국보다 9.1%p·8.5%p 높아

2019년 전북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은 4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로 살펴본 전북의 자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경제활동인구는 95만3,000 명으로 고용률은 59.3%,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고용률 79.5%, 경제활동참가율 81.3%로 가장 높으며, 전국 대비 고용률(1.1%p), 경제활동참가율(1.1%p) 모두 높다. 특히, 전북 60대 이상은 고용률 48.4%, 경제활동참가율 48.9%이며, 전국보다 고용률(6.9%p), 경제활동참가율(5.9%p) 모두 높다.

2019년 전북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대비 93천 명(10.8) 증가했으며, 고용률 1.5%p, 경제활동 참가율 2.0%p 증가했다. 연령대별 2019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대비 20대(-1.1%p, -0.8%p), 40대(-2.8%p, -1.9%p)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대는 모두 증가했다.

2019년 전북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5만1,000명으로 고용률은 42.0%, 경제활동참가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보다 전북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은 9.1%p, 경제활동참가율은 8.5%p가 높았다. 2019년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대비 4만2,000 명(38.5%)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9%p, 경제활동참가율은 3.3%p 증가했다.

2018년 전북 신규사업자는 4만9,259 명으로 40대 1만4,052명, 50대 1만3,296 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신규사업자 구성비는 일반사업자가 55.0%(2만 7,081명)로 가장 많고, 법인사업자는 8.3%(4,100명)로 가장 적었다.

2018년 전북 폐업사업자는 3만2,244 명으로 40대 8,328명, 50대 8,035명 순이었다. 전북 폐업사업자 구성비는 일반사업자가 51.4%(1만5,541명)로 가장 많은 반면, 법인사업자는 6.4%(1,934 명)로 가장 적었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